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

코로나 영역

1. 다음 중 수능 시험장에서 하면 안되는 행동은?

- ① 시험 시작 전 신분 확인 위해 마스크를 벗는다.
- ② 점심 시간 마스크를 벗고 제 자리에서 식사한다.
- ③ 시험 도중 답답해서 마스크를 잠깐 내린다.

정답: ③
시험이 끝날 때까지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한다. 벗을 시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수험생 '마스크와의 전쟁'

3주 남은 수능 주의사항 꼼꼼히 살피고 연습해야

신분 확인·점심시간 외 벗으면 '부정행위'
당일 유증상자·격리자 KF80 이상 착용을

시험 시간 내내 마스크는 단 2차례만 벗을 수 있다. 시험 전 신분 확인 때와 점심 식사 시간 외에는 마스크를 절대 벗어서 안된다. '코로나19' 국면에서 치르는 첫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방역관리 지침과 부정행위 규정 등이 강화되면서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확 달라진 수능 지침에 막바지 점검은 물론 바뀐 상황에 대한 적응(연습)과 마인드컨트롤이 힘들다는 불만 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마스크 착용은 필수 사항... 칸막이에 어떤 것 도 적으면 안돼=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합동 수능관리단이 확정 발표한 '2021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에 따르면 이번 수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 '마스크 필수 착용'이다.

비밀 차단을 위한 칸막이도 각 책상마다 설치된다. 높이는 60cm이며, 커닝 방지를 위해 기존 투명에서 반투명으로 변경됐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칸막이에 어떤 것도 쓰면 안 된다는 것이다. 칸막이 안에서 오해받을 수 있는 손동작도 자제하는 게 좋다. 감독관은 시험 중일 때는 물론 매 교시 직후 칸막이를 점검하게 돼 있다.

◇코로나 관련 규정은 +α... 기존 부정행위 사항도 유념해야=이 외에 예년에 부정행위로 분류됐던 사항은 이번에도 똑같이 부정행위다.

4교시 선택 탐구영역 시험 시간 중 책상 위에 2개 이상의 문제지와 답안지를 두는 행위와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타 과목 문제지를 보는 행위, 탐구 영역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공부하거나 마킹하는 행위 등이다.

휴대전화, 전자담배, 블루투스 이어폰 등은 애초 반입 불가다. 불가피한 이유로 가져왔을 경우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시험 도중 소지·이용 사실이 적발되거나 알람만 울려도 부정행위다.

시계는 아날로그식만 가능하다. 액정표시장치(LCD), 발광다이오드(LED) 화면이 있는 전자시계는 불가하다.

이와 관련 입시전문가들은 "시험당일 지침을 어겨 부정행위로 판정되면 당해 시험이 무효로 돌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고의성이 심할 경우 내년 수능 응시 자격도 정지된다"며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이번 수능에서 유의해야 할 점을 하나씩 짚어보고 적응이 필요하다면 매일 연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이와 관련 입시전문가들은 "시험당일 지침을 어겨 부정행위로 판정되면 당해 시험이 무효로 돌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고의성이 심할 경우 내년 수능 응시 자격도 정지된다"며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이번 수능에서 유의해야 할 점을 하나씩 짚어보고 적응이 필요하다면 매일 연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이와 관련 입시전문가들은 "시험당일 지침을 어겨 부정행위로 판정되면 당해 시험이 무효로 돌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고의성이 심할 경우 내년 수능 응시 자격도 정지된다"며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이번 수능에서 유의해야 할 점을 하나씩 짚어보고 적응이 필요하다면 매일 연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이와 관련 입시전문가들은 "시험당일 지침을 어겨 부정행위로 판정되면 당해 시험이 무효로 돌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고의성이 심할 경우 내년 수능 응시 자격도 정지된다"며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이번 수능에서 유의해야 할 점을 하나씩 짚어보고 적응이 필요하다면 매일 연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칸막이는 탁상행정" 수험생 불만

이번 수능의 또다른 변수가 된 방역용 칸막이에 대한 수험생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방역을 위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정작 칸막이를 사용할 수험생들 사이에선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시험지는 양면을 펼쳤을 때 4월 지 크기로, 시험지만 울려도 책상이 비좁은데 칸막이까지 설치하면 공간 활용이 한정적이라는 것이다. 칸막이가 떨어지거나 흔들리면 시험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교육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방역관리를 위해 칸막이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 철회가 어렵다는 입장인 수험생들은 달라진 환경에 적응해 시험을 잘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과 학교, 학원에선 일제히 칸막이를 주문해 적용하려는 사례까지 등장했다. 최대한 고사장과 비슷한 환경에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칸막이 설치에 대비한 다양한 제안들도 나오고 있다. 유튜브 등에는 칸막이로 인한 책상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공유됐다. 시험지 뒷부분을 밑에 칸막이 아래 공간에 밀어넣고 시험지 하단의 문제를 푸는 식이다.

칸막이 설치에 대비한 다양한 제안들도 나오고 있다. 유튜브 등에는 칸막이로 인한 책상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공유됐다. 시험지 뒷부분을 밑에 칸막이 아래 공간에 밀어넣고 시험지 하단의 문제를 푸는 식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동신대, IPP형 일학습병행사업 재선정

동신대학교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IPP형 일학습병행사업에 재선정됐다.

IPP형 일학습병행사업은 대학생들의 현장실무 능력 강화, 대학과 기업 간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산학협력 모델이다.

4개월 이상 장기기간에 걸쳐 기업에서 현장실무를 하는 장기현장실습, 학생과 산업체가 학습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업에서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준)기반의 도제 교육과 학교 교육을 병행하는 일학습병행 등 2가지 프로그램을 대학에서 운영한다.

동신대는 지난 2016년 IPP형 일학습병행사업에 선정돼 5년째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재선정으로 오는 2024년 2월까지 사업을 계속 운영하게 된다. 현재까지 201개 기업에서 592명이 장기현장실습, 55개 기업 125명이 일학습병행에 참여했다. /채희중 기자 chae@

광주 기간제교사 비율 14% '특·광역시 최고'

사립학교 담임 43% 차지

광주지역 학교의 기간제교사 비율이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높아 학교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회 임미란(더불어민주당, 남구3)의원은 9일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광주시 기간제교원 비율이 13.64%로 전국 최고 수준으로 정규교원은 감소하고 있는데, 기간제교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밝힌 교육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광주시 전체 교원 1만 6281명 중 정규교원은 1만 4061명, 기간제교원은 2220명으로 파악됐다. 기간제교원 비율이 13.64%로 전국 특·광역시 중

제일 높았다.

광주시와 규모가 비슷한 대전시의 경우 전체 교원 1만 6146명 중 정규교원은 1만 4736명, 기간제교원은 1410명으로 기간제교원 비율이 8.7%로 낮았다. 이 밖에 서울 12%, 부산 13%, 대구 11%, 인천 10%, 울산 11% 등이었다.

광주시는 지난 2000년 특·광역시 중 정규교원 대비 기간제교원 비율이 2.26%로 가장 낮았으나, 20년만에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특히 광주 지역 사립학교 담임교사 1734명 중 정규교원 담임 984명, 기간제교원 담임 750명으로 기간제 담임 비율이 43.3%를 차지해 담임 10명 중 4명이 기간제교원으로 파악됐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늦가을 정취 물씬 9일 오후 광주 남구 노대동 풀빛근린공원 산책로의 나무들이 일제히 노랗게 물들어 늦가을 정취를 물씬 풍기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광주 남구 '에너지 복지' 전국 지자체 대상

한국에너지공단 선정

광주 남구가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국 최고 수준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지원 사업을 추진, 한국에너지공단 주관으로 진행된 공모전에서 대상을 거머쥐었다.

9일 남구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전기회관에서 '2020년 에너지 바우처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다. 남구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등 관내 에너지

취약계층 세대의 보편적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로 전기와 도시가스,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에너지 바우처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남구의 2019년 에너지 바우처 발급률은 104.4%에 달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 남구는 지난해 행복한 복지 7979센터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총 3041세대에 에너지 바우처를 발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6년
1954 ~ 2020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2021학년도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

입학문의 ▶ 062) 605-1115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56
		성경연구학과(Th.M.)	10
일반대학원	박사	신학과(Ph.D.)	6
		목회학과(D.Min.)	2
		유아교육학과(D.Ed.)	5
		사회복지학과(D.S.W.)	6
		상담심리치료학과(D.C.S.)	7
		코칭심리학과(D.Psy.)	7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D.C.S.)	5
		휴먼서비스교육학과(D.Ed.)	12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D.C.S.)	10
		신학과(Th.M.)	14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유아교육학과(M.Ed.)	8
		상담심리치료학과(M.A.)	15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코칭심리학과(M.Psy.)	10
국제대학원	석사	재활심리치료학과(M.A.)	10
		사회복지학과(M.S.W.)	15
음악대학원	석사	평생교육학과(M.Ed.)	10
		한국어교육학과(M.Ed.)	20
음악대학원	석사	휴먼서비스교육학과(M.Ed.)	8
		음악학과(M.A.)	6
		실용음악학과(M.A.)	6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전형일정

특별전형 신학대학원

- 원서접수: 2020. 11. 17(화) ~ 25(수)
- 전형일: 2020. 11. 30(월) 오후 2시 30분

일반전형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

- 원서접수: 2020. 11. 30(월) ~ 12. 9(수)
- 전형일: 2020. 12. 11(금)/12(토)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